



## 미 증시, 금리 상승, 인플레이 경계감 등으로 약세

### 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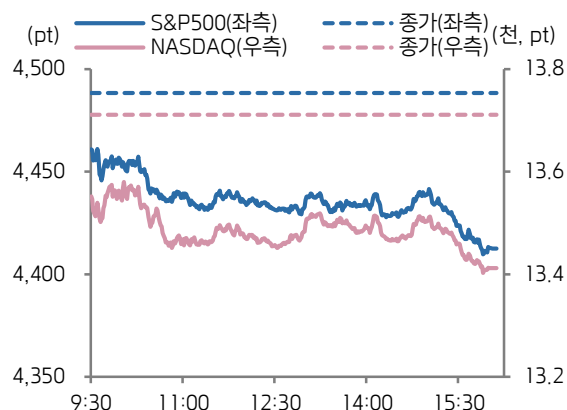
11 일 (월) 미국 증시는 미국 3 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경계감, 금리 상승 부담에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. S&P500 지수는 0.6% 하락 출발 이후 테슬라(-4.8%), 애플(-2.6%), 알파벳(-3.2%), 마이크로소프트(-3.9%) 등 대형 성장주들의 급락세로 장중 빠르게 낙폭을 확대하며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. 아시아 증시에서 2.77%를 상회한 미국 10 년물 금리는 미국 현물시장에서 2.78%까지 상승하며 성장주들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. 증시는 미국 CPI, 어닝시즌 등을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VIX 지수(24.4pt) 15% 급등, 금 가격이 상승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모습을 보임(다우 -1.19%, S&P500 -1.69%, 나스닥 -2.18%, 러셀 2000 -0.71%).

금리 상승 요인으로 다음날 미국 3 월 소비자물가지수(예상 YoY +8.4%, 전월 +7.9%)에 대한 경계감,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중국 물가 지표(3 월 CPI YoY +1.5% vs 예상 +1.2%, PPI +8.3% vs 예상 +7.9%), 연준위원들의 발언들도 매파적인 발언 등이 있었음.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"올해 말까지 중립 금리까지 도착하길 원한다면 (5 월 FOMC 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진행할)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"고 발언.

업종별로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, 에너지(-3.1%), 통신(-2.9%), IT(-2.6%)의 낙폭이 가장 컸던 반면, 산업재(-0.3%), 소재(-0.5%), 필수소비재(-0.5%)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작았음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-2.1% 급락, 금융(-0.5%)도 금리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하락. 한편, 다우 운송 지수(+0.4%), 다우 항공 섹터 지수(+2.7% 상승)는 유가 하락의 수혜 기대감에 상승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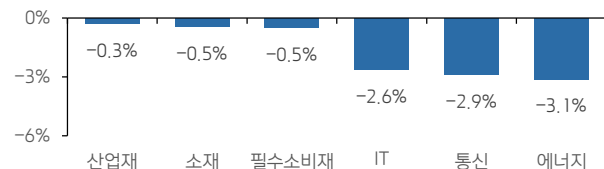
종목별로 애플, 테슬라, 엔비디아(-5.2%) 등 기술주들의 낙폭이 가장 컸음. 특히 엔비디아는 소비자 PC 수요 둔화로 투자의견을 하향한 베어드 여파로 낙폭이 컸음. 리오프닝주들은 델타(+4.0%), 사우스웨스트(+3.4%), 카니발(+1.1%) 등 상승, 에어비엔비(-1.4%), 엑스피디아(-1.4%) 등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임. 한편 AT&T(+7.7%)는 워너미디어의 분사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에 급등.

### 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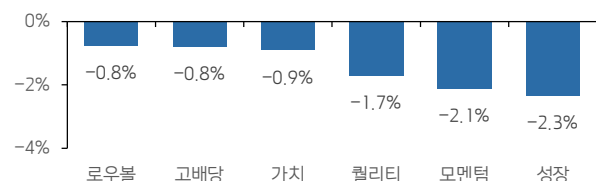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#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4,412.53	-1.69%	USD/KRW	1,233.30	+0.64%
NASDAQ	13,411.96	-2.18%	달러 지수	99.99	+0.19%
다우	34,308.08	-1.19%	EUR/USD	1.09	+0.05%
VIX	24.37	+15.17%	USD/CNH	6.39	+0.28%
러셀 2000	1,980.32	-0.71%	USD/JPY	125.36	+0.82%
필라. 반도체	3,055.09	-2.09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4,527.20	+0.39%	국고채 3년	3.219	+21.9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3.320	+13.9bp
Eurostoxx50	3,839.62	-0.49%	미국 국채 2년	2.506	-0.6bp
MSCI 전세계 지수	702.13	-0.04%	미국 국채 10년	2.771	+7.1bp
MSCI DM 지수	3,012.19	-0.06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1,127.93	+0.17%	WTI	94.84	-3.48%
MSCI 한국 ETF	68.38	-0.75%	금	1957.1	+0.59%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					



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###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75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1.25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34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,235.7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### 주요 체크 사항

1. 엔비디아(-5.2%) 등 미국 테크주 급락이 국내 관련주들에게 미치는 영향
2. 국내 장 마감 후 발표 예정인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를 둘러싼 경계심리 장중 확산 여부
3. 원/달러 환율 레벨 부담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세 지속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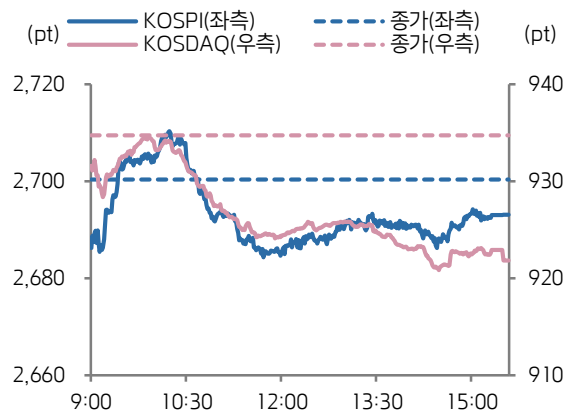
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미국 증시 장중 미 10 년물 국채금리가 2.79%선까지 도달하는 등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기술 및 성장주를 중심으로 조정 압력을 가하고 있음. 지난 3 월 FOMC 의사록에서 확인된 연준의 강도높은 양적 긴축에 대한 여진 속 인플레이션 경계심리가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1 년 기대인플레이션은 6.6%로 지난 2 월(6.0%)를 상회하면서 2013 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단에서도 인플레이션 불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.

결국 12 일 발표 예정인 3 월 미국의 소비자물가(컨센서스 8.4%YoY, 전월 7.9%)가 증시의 단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. 현재 백악관에서는 3 월 소비자물가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반영이 되면서 비정상적인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. 3 월 수치 자체는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, 3 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. 또 최근 물류대란발 인플레이션을 재차 유발한 상해 봉쇄 조치의 경우, 상해 당국이 11 일 이후 상해의 약 40% 지역에 대한 봉쇄조치를 완화시켰다는 점도 안도 요인. 해당 지역에서의 봉쇄조치가 4 월 말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, 2 분기 중 미국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망은 유효하다고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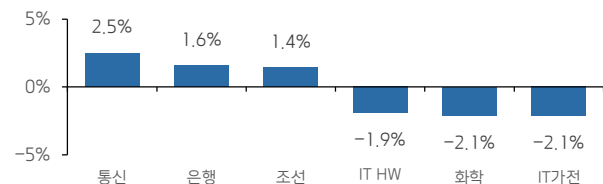
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3 월 인플레이션 지표 경계심리, 나스닥 급락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. 최근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로 코스피가 2,700 선을 재차 하회했다는 점이 부담이지만, 11 일 종가기준으로 코스피의 PBR(12m fwd)은 0.99 배이며, 지난 1 월 증시 조정기에도 해당 레벨이 지지선 역할을 했었다 점을 상기해볼 필요. 더 나아가, 금주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 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한다는 점도 국내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.

### KOSPI & KO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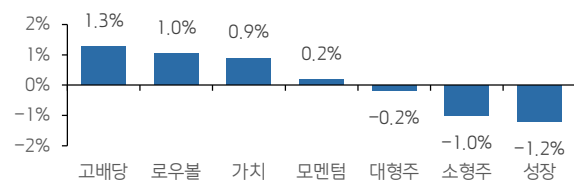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#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i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